

PA-16

동해안 냉조풍 상습지의 재식본수별 벼 품종간 변이

박노봉^{1*}, 송유천¹, 남민희¹, 심흔¹, 이지윤², 김상열², 박동수², 고종민²

¹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길 44(원황리)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

²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(내이동)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
우리나라 동해안 연안지역에서 냉조풍 피해가 가장 빈번한 상습지역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원이다. 바다로부터 저온 해풍은 벼 이앙 후 활착지연, 분얼약화 등으로 벼 초기생육이 매우 부진하여 적정 이삭수 확보가 수량유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. 또한, 벼 품종에 따른 이삭수 감소차가 커서 재식본수에 따른 벼 품종에 대한 생육 및 수량변이를 규명하여 수량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하나로 제시가 필요함.

[재료및 방법]

2016~2018년 삼덕벼 등 7품종을 중묘(35일묘, 4월30일 파종)로 육묘하여 시험장소를 해안에서 500m 지점에(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) 재식거리 30×15cm, 주당 재식본수 3본, 6본, 시비량(N-P₂O₅-K₂O) 9-4.5-5.7kg/10a로 6월 5일 동시 손이앙하였다. 기타 재배법은 농촌진흥청 벼표준재배법으로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시험결과 도복발생은 재배기간 동안(3년) 발생되지 않았다. 재식본수에 따른 벼 품종간 출수기는 3본이 평균 1일 늦었으나, 간장, 수장, 수수는 차이가 없었고, 등숙비율, 수당립수는 3본이 높은 편이나, 현미천립중, 정현비율, 쌀수량은 6본이 좋았는데 현미천립중의 영향으로 보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((세부과제명: 동해안 특수환경 극복 벼 품종 적응성 평가 연구, 세부과제번호: PJ01187206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54-732-0385, E-mail. parknb@korea.kr